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에 깃든 이야기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은덕으로 난생처음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고 그 감격을 목청껏 노래하고 싶어 하는 인민의 절절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간절한 소망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9월 어느날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창작가들에게 국가창작의 절박성에 대하여 강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롭고 강의한 인민이라는데 대하여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에게 당당한 우리 조국의 노래, 국가를 주어야 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국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사 한구절한구절을 짚어가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란 시행부터 그아래는 반복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인데 그 좋은 대목을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고, 그 대목을 한번만 부르면 너무 단조로울것같다고, 노래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 하여 부르면 선률적효과로 보아도 좋고 음악상조화도 잘될뿐 아니라 노래가 한결 장중해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감과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줄것 이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이 높뛰게 하고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갈 애국적열정이 끝없이 샘솟게 하는 국가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 났다.